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역량과 자아존중감의 연속다중매개효과

박동진¹, 김송미^{2*}, 박경아³

¹경기복지재단 복지협력팀 연구위원, ²명지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전임연구원, ³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The Effects of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on Life Satisfac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 Serial Multipl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Competence and Self-Esteem

Dong-Jin Park¹, Song-Mi Kim^{2*}, Kyung A Park³

¹Research Fellow, Welfare Cooperation Team, Gyeonggi Welfare Foundation

²Researcher, Institutional Review Board, Myongji University

³Doctorate Student, Dept. of Social Welfare, Kangnam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역량과 자아존중감의 연속다중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2기 1차년도 조사(2019)의 청소년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이중문화 수용태도는 삶의 만족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사회적 역량이 매개하였다. 셋째,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자아존중감이 매개하였다. 넷째,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사회적 역량과 자아존중감이 연속적으로 다중매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다문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본 연구결과가 가진 함의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본 연구결과가 가진 한계점을 제시하고 후속연구에 대해 제언하였다.

주제어 : 다문화 청소년, 이중문화 수용태도, 삶의 만족도, 사회적 역량, 자아존중감, 연속다중매개효과

Abstract This study tried to examine the effect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on their life satisfaction and the serial multiple mediating effect of social competence and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To this purpose, we analyzed adolescents data from the first year(2019) of the 'Multicultural Adolescent Panel Study'(2nd group).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life satisfaction. Second, social competence mediated the effect of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on life satisfaction. Third, self-esteem mediated the effect of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on life satisfaction. Fourth, social competence and self-esteem were successively multi-mediated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on life satisfac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implications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along with measures to support the healthy growth and development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Key Words : Multicultural Adolescent,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Life Satisfaction, Social Competence, Self-Esteem, Serial Multiple Mediating Effect

*Corresponding Author : Kim, Song-Mi(matumism0730@gmail.com)

Received April 1, 2022

Revised April 13, 2022

Accepted May 20, 2022

Published May 28, 2022

1. 서론

오늘날 한국 사회에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다문화 가정이 존재하며, 이는 더 이상 낯선 현상이 아니다. 또한 다문화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가정에서 출생한 다문화 가정 자녀들도 그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세대들은 다문화 가정에서 출생해 성장하면서 부모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질적인 이종문화를 경험한다. 이러한 성장환경은 다양한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기회를 가진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1]. 그러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적절히 수용하지 못하거나 주위 환경이 이러한 배경에 대해 부정적인 편견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개인의 심리정서적 발달에 부정적일 수 있다[2]. 실제로 다문화 청소년은 청소년기의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발달적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와 함께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사회적 낙인들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이는 다문화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4].

한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한다는 것은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현재까지의 삶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만족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한 개인의 삶의 질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며, 삶의 만족도라는 개념으로 살펴볼 수 있다[5]. 특히 청소년기에는 단일한 차원보다 다차원으로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청소년기에는 학교생활,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등에서 사회적인 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주변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화를 고려해서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6].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일반 청소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4,7]. 다문화 청소년은 발달단계상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과 함께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3]. 특히 한국과 같이 동화주의적 정책을 중심으로 한 국가들에서 이주민들은 동화에 대한 압력을 높게 지각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이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낮출 수 있다[8]. 안선정 외[9]는 다문화 청소년들이 다문화 가정 출신이라는 이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밝힌 바 있다.

국제결혼가정에서 출생한 다문화 청소년들은 성장하면서 부모의 문화적 배경에서 발생하는 상이한 생활양식, 양육방식에서의 차이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에 따른

부정적인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다[10]. 이러한 경험은 다문화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11]. 그러나 이종문화 환경이 다문화 청소년에게 있어서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이를 통해 긍정적인 자아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다[1], 이종문화 수용태도는 이질적이고 서로 다른 문화 안에서 이를 적절히 수용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실제 다문화 청소년은 이종문화를 적절히 수용했을 경우에 삶의 만족도가 향상되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12,13].

한편, 이종문화 수용태도가 교우관계[14,15], 사회적 위축[16,17]과 같은 사회적 관계 관련 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게다가 사회적 관계의 발달은 청소년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발달과업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18]. 청소년기에 사회적 관계에서의 상호작용은 주로 감정교류를 통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을 억제하고 긍정적인 감정과 의도를 야기하는 능력은 사회적 관계를 발달시키는 역량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19]. 이러한 역량을 사회적 역량이라 하는데, 이는 적절히 사회적 관계를 맺는 사회적 기술을 포괄하는 개념이다[20]. 사회적 역량은 사회적 맥락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효율적인 기능이며, 이를 통해 사회적 상황에 놓였을 때 적절히 적응할 수 있도록 기능한다[21].

이종문화 수용태도는 사회적 역량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자아존중감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문화 청소년이 이종적인 문화를 수용하는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졌다[14,22,23].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해 존중하고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판단을 말하는데[24], 어느 시기보다도 자신에 대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청소년기는 자아존중감이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25]. 자아존중감은 청소년 발달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여겨진다[26]. 특히 다문화 청소년의 이종문화 수용태도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자아존중감이 매개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12]. 이종문화 수용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지만, 자아존중감도 높여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적절히 대인관계를 맺고, 이를 유지하고 지속할수록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자아존중감도 긍정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27]. 다시 말해 이종문화 수용태도는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쳐, 이 수준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관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

고, 사회적 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되어 자아존중감이 향상되는 결과를 추론할 수 있다. 다문화 청소년의 긍정적인 교우관계는 높은 자아존중감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8]. 또한 사회적 능력이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9]. 이를 볼 때 사회적 역량과 자아존중감 간의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추론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노승현과 서향리[30], 이상은과 최나야[31]는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를 통해 이중문화 수용태도, 사회적 역량,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간의 유의미한 관계를 추론해볼 수 있고, 특히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사회적 역량과 자아존중감이 연속적으로 매개하고 있음을 추론해볼 수 있게 한다.

위에서 살펴본 결과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사회적 역량과 자아존중감을 거쳐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모형을 설정하고자 한다. 또한 사회적 역량과 자아존중감이 각각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삶의 만족도를 매개하는 경로도 설정하였다. 다시 말해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사회적 역량과 자아존중감의 단순매개효과를 살펴보고, 이와 함께 사회적 역량과 자아존중감이 연속적으로 다중매개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은 아래와 같다. 첫째,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사회적 역량이 매개할 것이다. 셋째,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자아존중감이 매개할 것이다. 넷째,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사회적 역량과 자아존중감이 연속적으로 다중매개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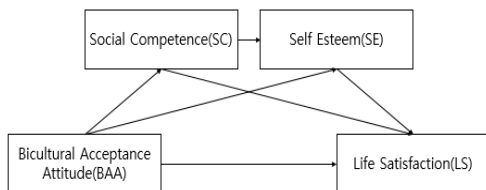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하여 제공하는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Multi-cultural Adolescent Panel Study: MAPS)’ 2기 1차년도 조사(2019)의 청소년 데이터이다. 이 패널조사의 2기 1차년도(2019) 조사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기본 조사단위로 하고 있는데, 이는 초등학교 4학년생 정도의 연령이 설문 내용을 이해하고, 스스로 응답할 수 있는 최소기준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30]. 2기 1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다문화 청소년은 총 2,246명이며, 출신유형은 국제결혼가정 1,734명(77.2%), 외국인가정 362명(16.1%), 중도입국가정 150명(6.7%)이었으며, 성별은 남성 1,144명(50.9%), 여성 1,102명(49.1%), 연령은 9세 23명(1.0%), 10세 2,109명(93.9%), 11세 99명(4.4%), 12세 13명(0.6%), 13세 2명(0.1%)이었다. 한편, 부모의 외국인 여부는 아버지 56명(2.5%), 어머니 1,828명(81.4%), 부모 모두 외국인 362명(16.1%)이었다.

2.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2기 1차년도 조사(2019)에서 사용한 문항대로 사용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2.1.1 이중문화 수용태도

이중문화 수용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노충래와 홍진주[1]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은 “나는 한국문화(음악, 영화, 음식, 옷 등)를 즐기는 편이다”, “나는 모국의 문화(음악, 영화, 음식, 옷)를 즐기는 편이다”, “나는 부모님이 외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나는 앞으로 계속 한국에 살고 싶다”, “나는 앞으로 모국에 가서 살고 싶다”, “나는 한국의 대학이나 회사에 다니고 싶다”, “나는 모국에 가서 대학이나 회사에 다니고 싶다”, “나는 모국문화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문화를 배우는 것은 내게 중요하다”이며, 총 10개 문항이다.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높다는 것을 말하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762로 나타나 대체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2.1.2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김지경 외[32]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은 “나는 사는 게 즐겁다”,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이며, 총 3개 문항이다.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말하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799로 나타나 대체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2.1.3 사회적 역량

사회적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백혜정 외[33]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은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린다”, “다른 사람과 협력을 잘 한다”, “다른 사람과 갈등이 발생했을 때 잘 해결한다”이며, 총 3개 문항이다.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역량이 높다는 것을 말하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840으로 나타나 대체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2.1.4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백혜정 외[33]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은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이며, 총 3개 문항이다.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말하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798로 나타나 대체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2.2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살펴보기 위해 SPSS 27.0을 활용하여 먼저 각각의 변수별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 분석, 기술통계분석 결과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alpha 값을 살펴보고,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하였다. 또한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사회적 역량과 자아존중감의 연속다중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Hayes[34]의 PROCESS macro 4.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PROCESS macro에서는 회귀분석을 통해 여러 개의 매개변수가 투입된 평행다중매개모형을 살펴볼 수 있고, 부트스트래핑으로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매개효과를 변수별로 분해하여 살펴볼 수 있어 변수별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데 효과적

이다. 본 연구에서 PROCESS macro의 모델6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연속다중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Hayes[34]가 제안한 절차대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다음으로 5,000회의 부트스트래핑으로 연속다중매개효과 모형에서 살펴본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에 대해 확인하였다.

3. 연구결과

3.1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이중문화 수용태도, 삶의 만족도, 사회적 역량, 자아존중감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하였다. 먼저 각 변수의 왜도와 첨도의 점수를 확인하여 정규분포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측정변수들의 왜도의 절대값이 3을 초과하지 않았으며, 첨도의 절대값이 10이하이므로 정규분포성을 충족하였다[35]. 변수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s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상호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Variables	N	Mean	S.D	Skewness	Kurtosis
BAA	2,246	29.58	4.40	-.22	1.10
LS	2,246	10.46	1.66	-.58	.20
SC	2,246	9.66	1.77	-.48	.20
SE	2,246	9.87	1.67	-.62	.90

BAA: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LS : Life Satisfaction, SC : Social Competence SE : Self-Esteem
*** p<.001

Table 2. Correlation Analysis

Variables	1	2	3	4
1. BAA	1			
2. LS	.35***	1		
3. SC	.35***	.55***	1	
4. SE	.37***	.57***	.55***	1

BAA: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LS : Life Satisfaction, SC : Social Competence SE : Self-Esteem
*** p<.001

3.2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사회적 역량과 자아존중감의 연속다중매개효과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사회적 역량과 자아존중감이 연속적으로 매개하는 연구모형을 설정하였고, 통계적으로 각 경로가 유의한

지를 살펴보기 위해 네 단계에 걸친 회귀분석을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단계에서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2단계에서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사회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3단계에서 사회적 역량과 자아존중감이 동시에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최종적으로 4단계에서 이중문화 수용태도, 사회적 역량, 자아존중감이 함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이 살펴보는 과정에서 4단계에서의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β)가 1단계에 비하여 낮아지면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 때 4단계에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면 사회적 역량과 자아존중감이 부분적으로 매개한다고 보고,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매개한다고 본다.

우선 1단계에서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한 회귀모형을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F=308.30, p<.001$). 그리고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살펴본 결과, 이중문화 수용태도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beta=.35, t=17.56, p<.001$). 이로써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단계에서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사회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한 회귀모형을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F=314.51, p<.001$). 그리고 회귀계수를 살펴본 결과, 이중문화 수용태도의 사회적 역량에 대한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beta=.35, t=17.73, p<.001$). 이로써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역량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단계에서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사회적 역량이 자아존중감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F=619.56, p<.001$). 회귀계수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살펴본 결과, 이중문화 수용태도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영향이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beta=.19, t=10.65, p<.001$), 사회적 역량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beta=.50, t=27.69, p<.001$). 이로써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사회적 역량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단계에서 이중문화 수용태도, 사회적 역량, 자아존중

감이 삶의 만족도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F=493.67, p<.001$).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살펴본 결과, 삶의 만족도에 대한 이중문화 수용태도($\beta=.11, t=6.36, p<.001$), 사회적 역량($\beta=.33, t=16.41, p<.001$), 자아존중감($\beta=.32, t=15.54, p<.001$)의 영향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Shrout & Bolger[36]가 제안했던 부트스트래핑으로 회귀모형에서의 3가지의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확인하였다. 부트스트래핑 방법은 표본 수가 같은 표본을 반복하여 추출하고, 이를 매개효과 모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간접효과의 표준오차로 재추정하는 것이다. 이는 95% 신뢰구간(Biased-corrected CI)을 의미하고, 그 신뢰구간 안에 0이 없으면 그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Table 3. serial multiple mediating effect of social competence and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and life satisfaction

Step	Outcome variables	Predictor Variables	B	S.E	β	t
1	LS	BAA	.13	.01	.35	17.56***
		F=308.30, p<.001, R-squared=.12				
2	SC	BAA	.14	.01	.35	17.73***
		F=314.51, p<.001, R-squared=.12				
3	SE	BAA	.73	.01	.19	10.65***
		SC	.47	.02	.50	27.69***
		F=619.56, p<.001, R-squared=.36				
4	LS	BAA	.43	.01	.11	6.36***
		SC	.31	.02	.33	16.41***
		SE	.31	.02	.32	15.54***
		F=493.67, p<.001, R-squared=.40				

BAA: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LS : Life Satisfaction, SC : Social Competence SE : Self-Esteem
*** p<.001

먼저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사회적 역량을 거쳐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를 살펴본 결과, 신뢰구간 내에 0이 없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B=.0440, 95\% \text{ Bias-corrected CI}=.0440 \sim .0045$). 그 다음으로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자아존중감을 통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를 살펴본 결과, 신뢰구간 내에 0이 없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B=.0230, 95\% \text{ Bias-corrected CI}=.0230 \sim .0330$). 이에 따라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자아존중감을

거쳐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사회적 역량과 자아존중감을 연속적으로 거쳐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B=.0210$, 95% Bias-corrected CI=.0210~.0025). 이에 따라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역량이 높아지게 되고,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며,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사회적 역량과 자아존중감을 연속적으로 거쳐서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이들 관계를 사회적 역량과 자아존중감이 부분매개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사회적 역량을 거치고 자아존중감을 거쳐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Table 4. Bootstrapping results verifying the significance of serial multipl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competence and self-esteem

	Bootstrap estimate		95% bias-corrected CI	
	B	S.E	Boot LLCI	Boot ULCI
BAA→SC→LS	.0440	.0045	.0356	.0318
BAA→SE→LS	.0230	.0033	.0170	.0181
BAA→SC→SE→LS	.0210	.0025	.0164	.0157

BAA: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LS : Life Satisfaction, SC : Social Competence SE : Self-Esteem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사회적 역량과 자아존중감의 연속다중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를 기초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동진과 김송미[12]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다문화 청소년이 이중문화를 적절히 수용하고, 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삶의 만족도도 긍정적으로 향상되는 것이다. 이를 볼 때 다문화 청소년이 이중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이질적인 이중문화에 대해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프로그램의 적절한 제공이 필요하다. 특히 다문화 청소년은 가정 내에서 부모를 통해 이러한 이질적인 이중문화를 경험하므로, 부모가 다문화 청소년에 대해 올바른 문화교육과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부모상담, 부모교육 등을 함께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둘째,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사회적 역량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교우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박동진과 김송미[14], 박동진과 김송미[15]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위축이 감소된다는 주소희 외[16]와 김윤정과 이진향[17]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이들 선행연구들에서 직접적으로 사회적 역량에 대해 살펴보는 않았으나, 사회적 역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적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있었으며, 이들 결과에서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사회적 관계가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이 이중문화를 적절히 수용하는 태도를 가질수록 사회적 역량 수준이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적 역량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를 향상시키고, 이를 강화하는 지원이 필요하며, 이중문화 속에서의 긍정적인 경험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자아존중감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진경과 이해정[22], 순한결과 김은혜[23], 박동진과 김송미[14,15]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즉 다문화 청소년이 이중적인 문화를 수용하는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를 볼 때, 이중문화 수용태도를 향상시키는 것은 이중문화 환경에 적절히 적응하게 함은 물론이고,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평가하게 함이 본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되었고 할 수 있다. 이에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중문화 수용태도를 높이는 것이 매우 주요한 접근방법임을 알 수 있었고, 이중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지지적인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 다문화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넷째,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이 자아존중감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강원[27], 김수지와 조민아[28], 송영주[29]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즉 타인과의 원만하게 적절한 관계형성을 형성하는 역량을 높아질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소년기에 원만하고 적절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인데,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관계를 원만히 맺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문화 청소년은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는데[37],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을 향상시키는 교육과 지원 등을 통해,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심리정서적인 적응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다섯째,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는 사회적 역량과 자아존중감을 연속적으로 거쳐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이와 함께 사회적 역량과 자아존중감을 연속적으로 거쳐 삶의 만족도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를 볼 때, 이중문화 수용태도, 사회적 역량, 자아존중감이 연쇄적으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선 이중문화 수용태도를 갖게 하는 접근이 이루어지면 서로 사회적 역량을 강화시키고,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접근이 연속적으로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이중문화 환경 속에서 적절히 적응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방법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기 위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다문화 청소년들은 이중문화 환경 속에서 적응해나가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10]. 이러한 스트레스 경험은 이중문화 환경에 대한 적응을 어렵게 하여, 전반적인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다문화 청소년이 자신의 역량으로 이중문화 환경에 적응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적절한 적응방법과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 지원기관 및 단체, 학교 등에서는 다문화 청소년들의 이중문화 수용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현재도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을 돕기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들이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아직 부족한 상태일뿐 아니라, 특정한 지역에 집중되어있어 그 지역 외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교육 및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다문화 청소년들의 이

중문화 수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고, 전국의 청소년기관 등을 통해 프로그램 제공이 확대되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사회적 역량은 청소년기에 발달되어야 하는 역량으로서, 적절한 사회기술, 사회적 관계경험을 통해 습득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특히 청소년기의 유의미한 사회적 관계인 교우관계가 긍정적으로 이루어기 위한 교우관계 증진 프로그램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다문화 청소년의 개인적 차원에서 적응을 돕는 접근이 많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접근도 물론 필요하나, 청소년기부터 더욱 중요시되는 사회적 관계를 잘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대인관계와 관련된 교육, 상담 등의 프로그램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설계되고 확대되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셋째,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다문화 청소년은 일상 생활에서 다문화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차별을 경험하거나, 부정적인 낙인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3,38]. 이로 인해 자아존중감이 저하되는 등 부정적인 심리정서적 상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자아존중감은 긍정적인 삶의 경험이 기본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검증된 이중문화를 적절히 수용할 수 있는 경험의 기회를 확대시켜줌으로써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주위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는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므로 [39],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지지적인 환경이 조성되도록 다문화 청소년 주위의 친구, 이웃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다문화 교육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사회적 역량과 자아존중감의 연속다중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증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이중문화 수용태도를 비롯한 사회적 역량, 자아존중감에 대해 접근할 근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의가 있음에도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 삶의 만족도, 사회적 역량,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횡단적인 시점에서 살펴보았다는 한계를 지닌다. 청소년기는 발달적 특성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종단적인 분석을 통해 이들 변인 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것을 제안한다.

REFERENCES

- [1] C. R. Nho. & J. J. Hong. (2006). Adaptation of migrant workers'children to Korean society : About Adaptation of Mongolian migrant worker's children in Seoul, Gyeong gi A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22, 127-160.
UCI : G704-000946.2006.22.005
- [2] D. J. Kim. & E. S. Seo. (2021). Effects of Discrimination Experiences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on School Adjustment: Focusing on the Classification of Discriminating Agent, Social Studies Education, 60(2), 169-183.
- [3] S. M. Kim. & K. E. Chung. (2013). A qualitative study on the stigma experience of multicultural youth, Forum For Youth Culture, 34, 27-49.
UCI : G704-SER000002119.2013.34.006
- [4] G. H. Chung. & J. Y. Lee. (2016). The Influence of Discrimination and Coping Strategies on Life Satisfac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The Moderating Effect of Coping Strategie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6(3), 336-362.
DOI : 10.15709/hswr.2016.36.3.336
- [5] Fujita, F., & Diener, E. (2005). Life Satisfaction Set Point: Stability and Chan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1), 158-164.
DOI : 10.1037/0022-3514.88.1.158
- [6] Y. W. Seo. (2016). Affecting the life satisfaction of multicultural children's youth · Study on ecological factors, The Multicultural Child and Youth Studies, 1(2), 55-102.
- [7] S. R. Song. & M. S. Park. (2019). The effects of dual cultural identity on the Satisfaction of Life among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Family and Culture, 31(4), 30-60.
DOI : 10.21478/family.31.4.201912.002
- [8] Y. J. Lee. (2019). The Present Situation and the Task of Multicultural Studies: Focused on the Limitations and Overcoming of Governmentled Multicultural Discourse, Minjok Yeonku, 74, 4-29.
DOI : 10.35431/MINJOK.74.1
- [9] S. J. An., H. C. Lee. & J. Y. Lim. (2013). The Influences of Conflict with Parents, Peer Relationship, and School Adaptation of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their Satisfaction with Life :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1(2), 78-91.
DOI : 10.7466/JKHMA.2013.31.2.077
- [10] H. Jiang. & E. K. Bae. (2018). The relationship between acculturation stress of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and their psychological maladjustment Focus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resilien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62, 131-164.
DOI : 10.24300/JKSCW.2018.06.62.131
- [11] J. S. Lee., J. C. Oh. & Y. S. Kang. (2021). A Study on the Effect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on the Life Satisfaction through the Latent Growth Modeling,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41(4), 243-261.
DOI : 10.15709/hswr.2021.41.4.243
- [12] D. J. Park. & S. M. Kim. (2021). he Effects of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on Life Satisfac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Depression, Journal of Wellness, 16(2), 267-273.
DOI : 10.21097/ksw.2021.05.16.2.267
- [13] S. J. Choi. & M. S. Kim. (2022).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Life Satisfaction of Youth with Migrant Backgrounds, Contemporary Society and Multiculture, 12(1), 83-107.
DOI : 10.35281/cms.2022.02.12.1.83
- [14] D. J. Park. & S. M. Kim. (2021). The Effects of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and Self-esteem on Peer Relationship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Moderated Mediating Effects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9(8), 361-370.
DOI : 10.14400/JDC.2021.19.8.361
- [15] D. J. Park. & S. M. Kim. (2021). The Effects of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on Academic Adapta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Peer Relationship, The Society of Convergence Knowledge Transactions, 9(2), 157-167.
DOI : 10.22716/sckt.2021.9.2.022
- [16] S. H. Ju., I. G. Oh. & S. J. Ahn. (2021). The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Bicultural Acceptance and the Achievement Motivation Among Multicultural Adolescents: Mediating Effect of Social Withdrawal,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2(3), 957-972.
DOI : 10.22143/HSS21.12.3.68
- [17] Y. J. Kim. & J. H. Lee. (2022). The Multipl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Social Withdrawa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cultural Adolescents'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and School Adaptation,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2(1), 131-142.
DOI : 10.22251/jlcci.2022.22.1.131
- [18] S. O. Son. & B. J. Lee. (2015). A Study of Influencing Factors of adolescent social relations: Examining the Mediating Effects of Aggression and Depression, and gender difference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2(10), 1-26.
- [19] Y. J. Jeon., K. R. Park. & Y. H. Jeon. (1998). A Study on Variables Related with Children's Social Competence,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8(1), 205-227.
- [20] Y. S. Kim. (2012). The Effects of a Developmental Program for Social Competences Utilizing Integrated Art Therapy on Adolescence Placed on Probation,

- Journal of Arts Psychotherapy, 8(1), 87-112.
- [21] Hops, H.(1983).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skill: Current research practices and future directions. Behavior Therapy, 38, 1017-1024.
- [22] J. G. Lee. & H. J. Lee. (2019). The Influence of Bilingual and Bicultural Factors on Self-esteem of Multicultural Youth, Journal of Social Science, 30(4), 81-100.
DOI : 10.16881/jss.2019.10.30.4.81
- [23] H. G. Sohn. & E. H. Kim. (2021). An Analysis of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Achievement Motivation among Multicultural Adolescents: Using Serial Mediators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ttitudes and Self-esteem,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8(4), 219-245.
DOI : 10.21509/KJYS.2021.04.28.4.219
- [24]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25] M. J. Park. & N. S. Yu. (2017). A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s' self-esteem and its related variables, Journal of Home Economics Education Research, 29(2), 67-84.
DOI : 10.19031/jkheea.2017.06.29.2.67
- [26] S. G. Kim. H. J. Choi. & Y. A. Lee. (2015). Influence of Parental Attachment on sexual attitude of Adolescents: Focusing on the Moderating of Self-Esteem,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12(3), 41-59.
UCI : G704-002141.2015.12.3.006
- [27] K. W. Cho. (2021). The Sequential Dual Mediating Effects of Relationship of friend and Self-Esteem Between Real-World Delinquency and Cyber-Delinquency of Adolesc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1(23), 565-579.
DOI : 10.22251/jlcci.2021.21.23.565
- [28] S. J. Kim. & M. A. Cho. (2021). The Autoregressive Cross-Lagged Effects between Self-Esteem and Peer Relationship at School among Early Adolesc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1(14), 165-183.
DOI : 10.22251/jlcci.2021.21.14.165
- [29] Y. J. Song. (2021). Children's self-esteem from academic and social ability: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school entrance,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1(1), 455-473.
DOI : 10.22251/jlcci.2021.21.1.455
- [30] K. M. Yang., Y. S. Jang. & Y. M. Jung. (2019). A longitudinal study on the youths with multi-cultural background 2019: General Report, Sejong: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31] S. E. Lee. & N. Y. Choi. (2021). The Mediating Role of Bicultural Exper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J.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9(1), 17-29.
DOI : 10.7466/JFBL.2021.39.1.17
- [32] J. K. Kim, H. J. Lim, S. W. Kim, S. H. Park, S. R. Yoo, J. Y. Choi & G. Y. Lee. (2006). Korea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0 I(Research Report 10-R01). Seoul :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33] H. J. Baek., H. J. Lim., H. C. Kim. & S. R. Ryu. (2017). 2017 Comprehensive Survey of Korean Youth(Research Report 2017-10). Seoul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 [34] Hayes, A. F. (2018).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2nd edition).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35] Kline, R. B. (2016).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4th ed.). Guilford Press.
- [36]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DOI : 10.1037/1082-989X.7.4.422
- [37] D. J. Park. & S. M. Kim. (2021). The Effects of Social Withdrawal on Life Satisfac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22(3), 127-146.
DOI : 10.155564/jeju.2021.09.23.3.127
- [38] J. B. Sul. (2021). Discrimination Experience and Adjustment Process of Migrant Adolescents in Korea - A Grounded Theory Approach -, Crisisonomy, 17(4), 99-121.
DOI : 10.14251/crisisonomy.2021.17.4.99
- [39] Y. J. Lee. (2019).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Self-esteem of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Focusing on Family, Teacher, and Friend Support,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 10(2), 1197-1210.
DOI : 10.22143/HSS21.10.2.85

박 동 진(Dong-Jin Park)

[상호취]



- 2020년 3월 ~ 2022년 2월 : 한영대 학교 사회복지과 조교수
- 2022년 3월 ~ 현재 : 경기복지재단 복지협력팀 연구위원
- 관심분야 : 사회복지실천, 청소년복지
- E-Mail : wookana@hanmail.net

김 송 미(Song-Mi Kim)

[장학원]



- 2020년 3월 : 도시샤(同志社)대학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21년 7월 ~ 현재 : 명지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전임연구원
- 관심분야 : 사회복지실천, 다문화사회복지
- E-Mail : matumism0730@gmail.com

박 경 아(Kyung-A Park)

[장학원]



- 2017년 3월 ~ 현재 :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수료)
- 2015년 4월 ~ 현재 : 경기복지재단 복지협력팀장
- 관심분야 : 거버넌스
- E-Mail : iwanyou35@naver.com